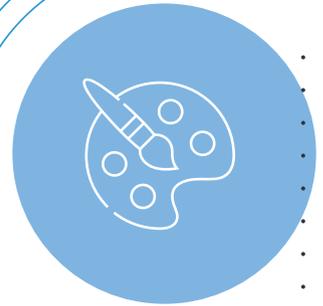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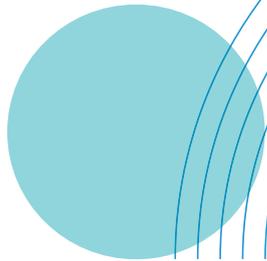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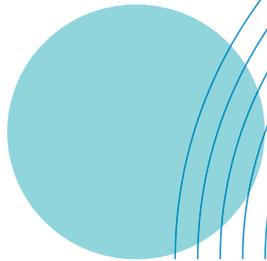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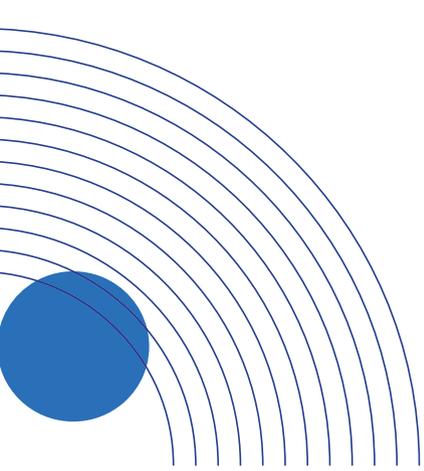
개인예산제,
내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내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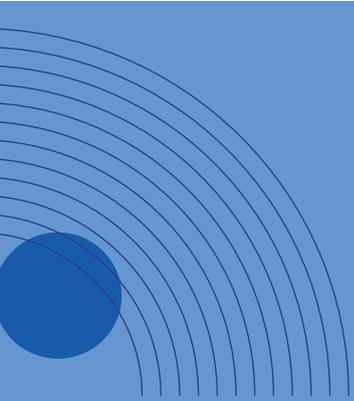
목차

우리의 발자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진행 경과	5
---------------------	---

함께해서 더 큰 희망, 더 큰 도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참여자 사례	15
지원코디네이터 참여 소감	53



우리의 날자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진행 경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진행 경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목적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전 개인예산 지급 전 단계까지 모의적용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운영절차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범사업 모델의 시행가능성 점검 및 모델 수립

개요

- **진행기간** : 2023. 10. ~ 2024. 3. (6개월)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18세~65세)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4개소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진행절차



주요 성과



‘내가 원하는 삶’에 첫 걸음

-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주제적 고민



함께하는 고민

- 참여자 85명의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욕구 파악
- 급여 승인을 위한 승인원칙 및 사정도구 수립



개인예산제를 향한 시도

- 실제 개인예산 지급을 위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통해 정교화된 시범사업 프로세스 구축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목적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추진에 앞서 참여자 선정 및 개인예산 지급, 모니터링 등 전체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모델 정교화

개요

- **진행기간** : 2024. 7. ~ 2025. 3. (8개월)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증장애인(만18세~65세)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영역** :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영역, 건강·안전, 주거환경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7개소**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진행절차



주요 성과



다양한 욕구, 맞춤형 지원의 시작

- 다양한 욕구 파악 및 개인 예산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 참여자 91명 개인예산 계획 수립, 75명 개인예산 이용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 심의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이용 시작(4개월간)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나에게 꼭 필요한 개인예산으로 한 걸음 더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완 사항 검토 및 장애인 욕구에 알맞은 지원영역 확대 방안 모색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목적

시범운영을 통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달체계의 현장 적용과 고도화 및 본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실행 기반 마련

개요

- **진행기간** : 2025. 5.~2026. 3.(10개월간)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 중증장애인(만18세~65세)
- **지원내용** : 1인 최대 240만원 범위 내 승인된 서비스 이용예산 지원
- **지원규모** : 130명(재가장애인 125명, 서울시 소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5명)
- **지원영역** :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영역, 자기개발, 건강·안전, 주거환경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서울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진행절차



주요 성과



함께 만드는 체계, 견고해진 기반

- 지원코디네이터 전문성 확립 및 참여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 참여자 124명 개인예산 계획 수립, 90명 개인예산 이용



나에게 맞는 지원, 넓어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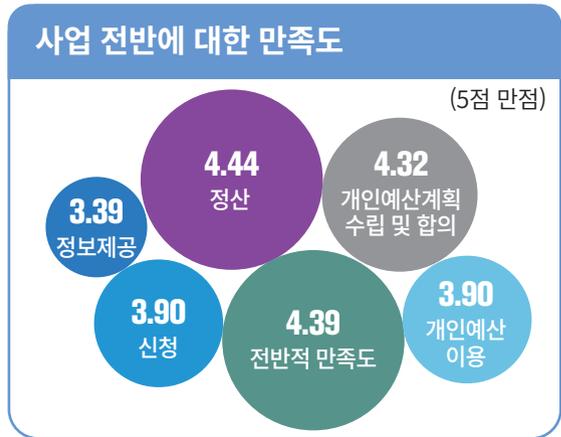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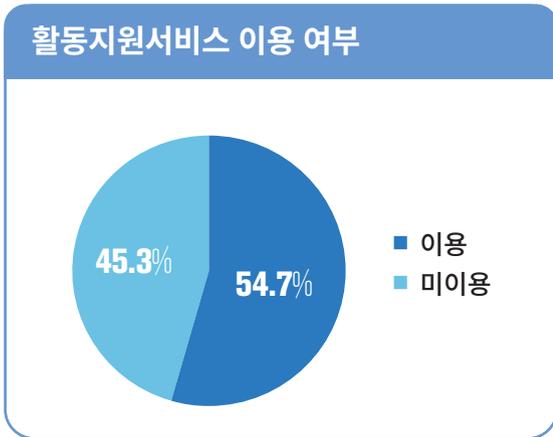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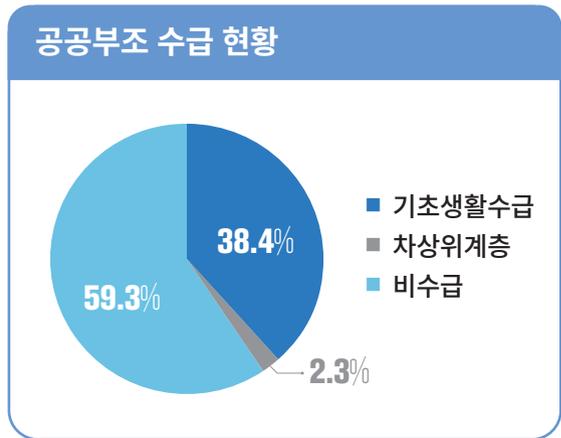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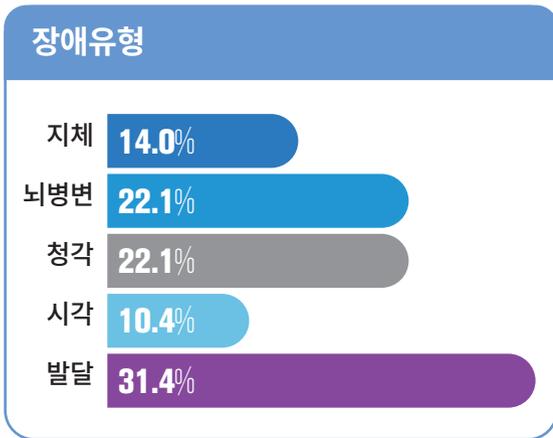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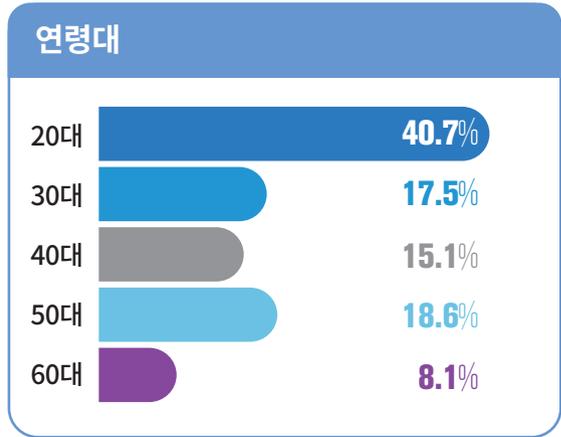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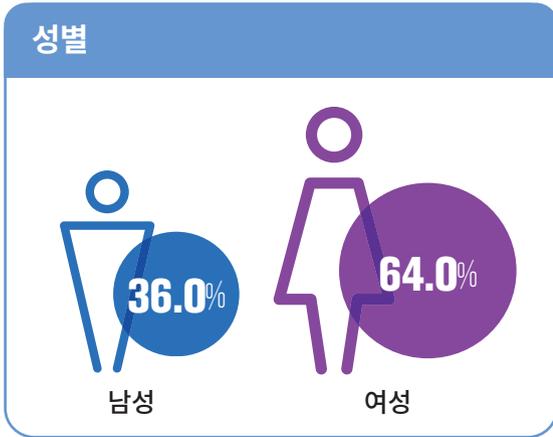
- 지원영역 확대를 통한 개인별 욕구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참여자 주도 개인예산계획 수립 및 활용 경험 강화



달라진 일상, 발견한 변화

- 지역사회 참여 증가
-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미래에 대한 기대 형성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



개인예산제가 바꾼 나의 삶,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전에는 쉽게 좌절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 것이 큰 성과입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많아졌습니다.
- 박00 참여자 -

하루에도 수십번씩 도움이 필요하던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높아졌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달라졌달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만족감, 뿌듯함.
- 최00 참여자 -

이전에는 몰랐던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 이00 참여자 -

제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직접 짜고 주체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 커요. 새로운 것을 해내니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좋더라구요.
- 홍00 참여자 -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직접 하게
되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삶에 새로운 목표가 자꾸
생겨나요.

- 권00 참여자 -

이전에는 못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개인예산제 덕분에
생각의 틀을 깬 계기가 되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오00 참여자 -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을 직접 하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벌써 한 점
판매하기도 했어요.

- 예00 참여자 -

집에서도
혼자 사는 연습을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혼자 1박2일 여행을
갔다오기도 하고,
자립에 대한 목표가 생겼어요.

- 문00 참여자 -



함께해서 더 큰 희망, 더 큰 도전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참여자 사례
 - 지원코디네이터 참여 소감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참여자 사례

01. 김OO_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6
02. 박OO_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
03. 김OO_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2
04. 송OO_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26
05. 신OO_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29
06. 최OO_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32
07. 최OO_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34
08. 권OO_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38
09. 윤OO_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43
10. 윤OO_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47
11. 류OO_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49

#01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한 나의 도전

김○○ 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기 전, 나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피자가게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은 성실히 해내고 있었지만 하루의 대부분이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그런 나에게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카페라테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잠시 쉬는 그 시간은 작은 위로이자 즐거움이었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카페 나눔 행사에 참여했던 날, 처음으로 ‘나도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단순한 취미로 두는 게 아니라, 직접 배우고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직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나의 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평소 긴장도가 높고,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편이다. 학원에 등록해 새로운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커피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개인예산제라는 사업을 안내 받았다. 특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익숙한 장소인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강사님과 1:1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내게 되었다. 낯설지 않고, 익숙한 곳에서 내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었다. 신청하는 과정이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망설여졌지만 담당 선생님의 지원으로 용기를 내 개인예산제를 신청하게 되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나는 원두의 종류와 특징, 에스프레소 샷 추출 방법, 우유 스티밍, 다양한 음료 제조 방법 등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동작 하나도 긴장이 되었지만, 강사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을 완성할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는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연습했던 시간과 강사님의 격려를 떠올리며 끝까지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니었다. 망설이던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게 해준 계기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익숙한 일상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내 삶에 활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다시 미화 업무에 집중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서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나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나를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일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만든 커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개인예산제는 나에게 망설이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이 경험은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때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제 조금 더 나 자신을 믿고 더 큰 도전도 경험해 보고 싶다.



#02

기술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다

박○○ 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저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로서 여러 기관과 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며,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움에 대한 열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특성상 학습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필요한 교재가 바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점자나 음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직접 받아 적으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는 녹음 테이프를 반복해서 감아 들으며 문장을 익혔고, 여러 번 받아쓰기를 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방식이 저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큰 장벽은 ‘도구와 환경’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애가 문제라기보다, 접근 가능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 더 큰 제약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배움의 도구가 조금이라도 더 평등해지는 방향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역시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만 기존의 AI 도구들은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비표준적인 키보드 조작을 요구하거나 마우스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와

같은 도구도 기능 자체는 유용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바이브코딩을 알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3개월간 바이브코딩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제 작업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Zoom과 원격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스크린리더로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 방식이 실제 학습 효율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직접 강의 제안서를 기획해보고, 강의 내용을 정리한 웹페이지도 제작해보았습니다. ‘내 맘대로 AI 길들이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AI를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한 단계 확장해본 시간이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 ‘내 맘대로 AI 길들이기’

특히 저는 에스페란토 기반의 바이브코딩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에스페란토는 국제 공용어로 만들어진 언어이고,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어의 취지와 기술의 가능성을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언어와 기술이 함께 장벽을 낮추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환경이 부족해 구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경험 역시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시장성,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 도중 진행된 참여자 모니터링과 강사님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상적인 방향’과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방향’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학습 도구의 제약을 경험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개인예산제 참여는 그 장벽을 조금은 넘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동시에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본 경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먼저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길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웹사이트 ‘엘리세듀’

#03

메이크업으로 피어난 나의 무대

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저는 복지관 내 카페에서 5년째 바리스타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단체주문이 오거나, 들어드릴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손님들에게 음료를 드릴 때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니 카페는 저에게 더 즐거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취미로는 집에서 혼자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춤과 노래를 즐깁니다. 집 안을 나만의 무대라 생각하고,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꾸미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꾸미고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 메이크업은 가끔 영상도 찍어 틱톡에 올리는데, 아직 반응은 거의 없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자연스러운 화장 방식, 괜찮은 영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쇼핑도 좋아합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 뭔가 하고 싶어지면 올리브영에 가서 쇼핑하는 걸 즐기고, 거기만 한 번 다녀오면 마법처럼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약해서 택시를 자주 타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는 운전면허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복지관 선생님께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를 권유해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에 참여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막막했지만, 복지사 선생님과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신청서도, 개인예산계획서도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가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도 생각과 달리 따뜻한 모습이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씨,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라고 해주셔서 “아, 내가 잘했었나?” 하며 설렘을 느끼고, 기대감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과거에 학원에 다닌 적이 한 번 있지만, 그때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재료도 없었으며,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는데, 개인예산제로 재료를 지원받으니 스스로 연습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는 시간은 저 스스로의 장점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동안 관계가 얽았던 선생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처음에는 그저 화장을 하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만 했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 생얼로 다니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남들 눈치가 너무 두려워 화장을 하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끔 뺨이 쳐다보거나 아래위로 훑는 사람이 있었고, “남잔데 왜 화장을 하나”, “게이 같다” 같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파운데이션이 너무 밝다고, 눈썹이 진하다고 지적을 받으며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린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반응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저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메이크업 3급을 따기 위한 교육과 재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책에 눈썹 그리기부터 시작했고, 피부 표현과 모델에게 아프지 않게 발라주는 법도 배웠습니다. 색조 화장법도 배우며 점차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과정 중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한 명이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비웃거나 화내고 강사님께 말씀드리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 저 같은 초보보다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과 짝궁이 되어 실습해야 해서 불편했고, 힘 조절이나 ‘눈 뜨고 감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과 일터에서 말하는 것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전에도 카페가 편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버벅이고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봤다면, 이제는 사람들 눈을 잘 보고 대화도 나눕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학원에서 도구 관련 위생관리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피부표현을 잘 하기 위해 기초케어에 신경쓰고, 메이크업을 지워내는 클렌징도 꼼꼼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피부까지 좋아졌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남들에게 공들여 화장해 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남에게 해줄 때에는 혼자 할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힘들긴 하지만, 색조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고, 잘 어울리면 마음속으로 쾌감이 듭니다. 나의 화장 방식을 거울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고 비교하면서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에 더 좋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방법도 알게 되었고, 과정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시험해보는 게 재미있어졌고, 점점 전문적인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면서 나에게 맞는 색조 화장품 호수도 알게 되고, 맞지 않는 색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 시선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화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쳐다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쳐다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 당당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2월 22일에 메이크업 3급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어, 열심히 문제집을 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틱톡에서 나아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나만의 화장법도 올리고, 원브랜드 메이크업 콘텐츠도 해보고, 협찬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3차 시범사업 기회가 닿는다면, 유튜브 활용법과 성공하는 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영상 편집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행복했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도 모두 도전해 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 꼭 도전하세요!

#04

나의 삶을 돌아보며, 첫 걸음

송○○ 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 쓰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글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집을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동생이 개인예산제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받아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괜히 신청한 것은 아닐까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해주는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고, 제 선택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처음 제가 세운 계획은 집에서 안전하게 시 강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기 위해 스탠바이미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의 운영 기준상 물품 구매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계획이었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평소 마음속에 간직해두었던 꿈인 시집 출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조금 속상하고 불편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일은 계속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제도 안에는 지켜야 할 기준과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천천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었고, 혹시 넘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안전바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좋은 업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안에 안전바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바가 설치된 후에는 집 안에서 걷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몸의 안전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보다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번 개인예산제 참여는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는 아쉬움과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계획들을 포기해야 했다는 점은 아직도 조금은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소망과 선택이 조금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험은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함께 방법을 고민해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제 삶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과 바람을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느낍니다.

비록 이번에는 시 강의를 위한 환경을 만들거나 시집을 출판하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예산제 참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선택해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제 삶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05

나의 세상에 말을 걸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찾은 '작가'의 꿈

신○○ 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닫혀 있던 마음, 정적인 그림에 머물던 나

저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로 인해 음성 언어와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들리지 않기에 말하는 법을 익히기 어려웠고, 이는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라는 문해력의 장벽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창 시절 겪었던 크고 작은 학교폭력은 저를 더욱 위축시켰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만화책 속으로 숨어드는 은둔형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만화 속 캐릭터들을 따라 그리며 나만의 세상을 꿈꾸기도 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지 못한 제 그림은 언제나 움직임 없는 정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여 동기: '나'를 이해해 줄 진짜 선생님을 찾아서

이 장벽을 깨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을 때, 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간 만났던 비장애인 선생님들은 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일쑤였고, 제 머릿속엔 갈증만이 남았습니다.

대학에서 수어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진로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자가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전문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인문학적 소양과 과외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달라진 나의 모습: '나 중심'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확장된 세계

선생님은 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단순히 교재를 훑는 것이 아니라, '나비효과'나 '국제 정세' 같은 어려운 주제를 제 삶과 연결해 수어와 한국어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됐던 제가 점차 외부 세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란 타인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소설처럼 풀어냈는지 아시겠나요?" 그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맞은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독자인 제 입장을 배려해 수업을 설계했듯, 저 또한 독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에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수어 문학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인스타그램에 수어 노래를 웹툰으로 그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수어 사이에서 방황하던 저는 이제 두 언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나' 중심의 사고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참여 소감: 자기주도적 삶이 만든 행복한 선택지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제 인생의 비전을 함께 설계해주는 러닝메이트였습니다. 선생님의 독려로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클래스'에도 도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이자 농인 예술가로서 첫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또한,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이 있으신 선생님과 함께 저에게 꼭 맞는 직무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기에, 선생님과 저는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매 순간에 임했습니다.

이제 저는 딱딱한 글자를 생동감 넘치는 수어로 재탄생시키는 '독서지도사'나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농인 예술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제게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와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6

메이크업 아티스트 꿈에 날개를 달다!!!

최○○ 님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저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비즈공예, 도예, 한지 공예, 종이접기 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에 다닐 때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을 해서 예쁜진 모습을 보고 메이크업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메이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복지관 선생님이 개인예산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와 청력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청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과 소통할 때 정보가 제한되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12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고,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개인예산제 사업에 신청서를 쓰고,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메이크업 학원 수강료와 재료비를 신청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지금은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월, 수, 금 학원에 가는 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하는 일로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 받고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예산제 참여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문화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크업 연습



■ 메이크업 재료

#07

개인예산으로 그리는 미래

최○○ 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개인예산제를 통해 맞춤형 개별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최○○님(23세)은 현재 사회복지와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1을 취득할 만큼 수준 높은 일본어 회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소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캐릭터 제작 등 창의적인 콘텐츠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쌓아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준급의 외국어 실력과 탄탄한 디지털 드로잉 능력을 결합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전문 창작자이자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새로운 도전을 항상 지지해 주시는 어머니와 지인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예산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창작 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삶을 꿈꿔왔던 저에게 개인예산제는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확신하여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 머물지 않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창작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100만 명의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글로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과정을 그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발판으로 삼고 싶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현재 저는 창작자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나,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 중심의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보내는 깊은 우려와 걱정은 때로 저의 도전 의지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곤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 서비스는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저의 시각적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교육을 받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머릿속에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기술적으로 온전하게 구현해내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숙련되지 않은 도구 활용 능력은 제가 꿈꾸는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무엇보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디지털 기기와 그리기 애플리케이션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기능들을 저의 시각적 특성에 맞춰 체득하면서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캔버스 위에 정교하게 구현해내는 그리기 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장은 단순한 연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거나 나만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직접 제작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저의 창작물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과정은 저에게 깊은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애를 넘어 세상과 당당히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향후 계획: 장애를 넘어 예술로 소통하는 창작자의 길]

저는 개인예산제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며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된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작가’라는 타이틀이 아닌, 저만의 독창적인 시각과 철학이 담긴 ‘나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는 저만의 창작물로 수많은 구독자와 깊이 있게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시각장애인 영상 크리에이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운 맞춤형 지원, 자립의 문을 열다]

학업으로 바쁜 대학 생활 중에도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번 시간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성격도 훨씬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특히 전문가이신 강사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위축되었던 저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맞춤형 수업 덕분에 저의 시각적 특성에 맞는 드로잉 포인트와 기술을 정확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이어가고, 도구에 익숙해져야 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지 계획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땅한 지지를 얻지 못해 막막할 때가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한 개인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머릿속에만 머물던 아이디어와 캐릭터들을 세상 밖으로 더 많이 그려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08

나만의 속도로 이뤄낸 의미 있는 창작

권○○ 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참여자 소개

나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좌측 편마비 장애가 있으며, 고령의 나이이지만 도예에 대한 꾸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20년도부터 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중증 뇌성마비인과 보호자에게 도예 전반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맡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며, 도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도예는 손의 세밀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좌측 편마비 장애가 있는 나에게는 처음부터 큰 도전이었다. 장애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참여자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줄 때,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이후 내가 좋아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도예강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적 목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나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앞으로도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예 강사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자 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한 손 사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 기존 도예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양손 사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나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도예를 전문적으로 배워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예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을 이어갔다. 나보다 중증의 장애가 있는 참여자들과 함께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에 출전하게 되면서 단체전 출품을 목표로 함께 노력한 결과 단체전에서 ‘특선’과 ‘금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큰 보람은 중증 장애로 인하여 도예라는 활동에 두려움을 느끼던 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사실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도예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개인예산제 참여하기 전에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예는 손의 세밀한 움직임과 반복적인 조작이 필요한 작업이었기에, 작업 과정마다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조금씩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며 도예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다양한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기에는 물리적·기술적 환경이 충분하지 않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나는 독학에 의존하여 기본적인 도예 기법을 익히며 노력한 결과, 기본적인 작품 제작은 가능했지만, 정교한 표현이나 고급 기법을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도에 강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점차 커졌다. 외부 강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강사 활동에 대한 자신감 또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기물레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고, 양손 사용이 전제되는 작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도전에 대한 의지는 점차 약화되었고, 익숙한 방식과 현재의 생활에 머무르며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도예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체계적인 성장 경로와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면서, 도예 강사로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복지관 내부 활동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인예산제를 통해 전문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외부 강사 활동까지 목표를 확장하게 되었다.

석고틀 제작 등 새롭게 습득한 기술을 복지관 수업 과정에서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공유하며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예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나에게 맞는 도구 사용법과 작업 자세에 대한 맞춤형 코칭을 통해 도예 작업 지속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신체 특성에 맞춰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며, ‘나만의 가능한 방식’으로 작업 효율과 완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기물레 성형이 양손 사용과 빠른 손놀림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인식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나, 나의 기능 수준에 맞는 자세와 방법을 익히며 첫 전기물레 작품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존에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도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발견한 나의 변화와 성장은 앞으로 도예 강사로서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도예 강사로서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단순한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나만의 교육 방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도예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화장토 장식 기법, 무늬 넣기 기법 등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지관 내부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짜여진 프로그램을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복지관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도예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나만의 도예 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복지관 카페 전시, 지역사회 문화공간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긍정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나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나의 가능성과 역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의 경험과 성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도예 강사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09

개인예산제가 만든 선택, 기록으로 증명되다

윤○○ 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참여자 소개

나는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으로, 장애인 수영선수를 목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전방워커를 사용하며 일상에서는 신체적 제약을 경험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수영을 하는 시간만큼은 장애로 인해 제한되었던 몸의 감각이 풀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영은 나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붙잡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나의 일상은 수영 훈련과 체력 관리, 회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이 없는 날에도 스트레칭과 밴드운동을 이어가며 몸 상태를 관리하고, 근육 강직과 피로를 조절하기 위한 회복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누군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수로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우며 형성된 나의 선택이다. 수영은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와 직결된 나의 진로이자 정체성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정식 소속팀이나 체계적인 지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오랜 시간 훈련을 이어왔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훈련을 지속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 강직과 어깨 가동범위 제한은 수영 동작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미세한 동작 차이가 기록으로 직결되는 수영 종목 특성상 이러한 신체 조건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훈련량을 늘려도 기록이 더 이상 줄지 않는 정체기를 경험하며, 훈련의 방향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가 필요한 지원을 직접 선택하고, 나의 장애 특성과 목표에 맞게 훈련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사업에 참여하기 전 나는 훈련량만 놓고 보면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자유형 영법에서 잘못된 팔 동작이 반복되며 상체 비대칭과 호흡 불안정이 누적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채 기록 정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음에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자, 노력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혼란과 불안이 점점 커졌다.

훈련 환경은 개인의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고, 장애 특성과 컨디션을 세밀하게 반영한 전문적인 교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훈련과 회복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다. 전국대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며, 선수로서의 미래에 대한 부담과 조급함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훈련과 삶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왜 기록이 정체되었는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영법 문제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훈련 구조가 바뀌었다. 훈련 전후 준비운동과 회복 관리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 역시 조급함보다는 안정과 집중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훈련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판단과 방향 설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록 향상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일상 전반의 리듬과 감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앞으로 나는 개인예산제 참여를 통해 마련된 훈련 구조를 바탕으로, 기록 정체를 극복하고 국가대표 입단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내 3초, 14개월 내 5초 단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패럴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나에게 단순한 훈련 지원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삶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지원 구조 안에서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다.

이 사업을 통해 나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 구조 안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고자 한다.

#10

실 한 올로 다시 시작한 나의 일상

윤○○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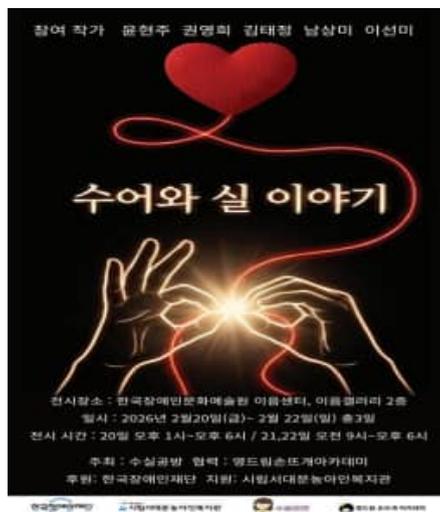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저는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삶은 익숙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제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실을 잡았습니다. 뜨개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세상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아픔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묻고,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 제도였습니다. 뜨개 교육을 받고 재료를 준비하며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실 한 올이 쌓일 때마다 멈춰 있던 제 시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어느 날, 완성된 인형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 하지만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오래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엄마 멋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엄마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전시에 참여하고 ‘수실공방’을 시작하며 저는 더 이상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인으로서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제 손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저는 제 삶을 다시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다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 준 힘이었습니다.

“실 한 올이 모여,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아들의 품처럼 따뜻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11

서울 원룸에 혼자살며 바리스타 배우는 나의 이야기

류○○ 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 35세 류○○입니다. 저는 현재 GS마트에서 상품 진열과 포장, 계산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며,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부터 커피를 직접 내리고 손님에게 정성껏 건네는 바리스타의 모습을 보며, 제 꿈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언젠가 커피를 만들며 손님과 소통하고, 나만의 기술을 뽐내는 전문성있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진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저에게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처음 개인예산제 사업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개인예산제를 통해 저에게 필요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자립체험. 두 번째, 당당히 인정받는 바리스타가 되기. 저는 부모님의 도움에서 조금씩 벗어나 혼자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부모님의 도움으로부터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직접 요리를 해먹고, 나만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총 10년 넘게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언제 또 직장이 바뀔지 모른다고 걱정도 컸습니다. 바리스타 준비와 카페를 창업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처음 혼자 살아보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원룸텔을 알아봤습니다. 어플을 통해 목동역 인근 원룸을 찾아보고, 직접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임대료가 비쌌고, 가격이 괜찮으면 너무 좁았습니다. 고민하다 결정하려고 하면 “방금 계약됐어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제가 직접 선택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정리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해보니까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지냈습니다. 한달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스스로 선택했고, 도전해볼 수 있다는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또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와 실무 기술을 배웠습니다. 종종

일하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오랜 꿈인 바리스타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라떼아트 초급, 중급 과정도 모두 수료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사업에 참여한 소감

지금은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라떼아트 고급과정까지 마치면 언젠가는 제 이름이 적힌 카페를 운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자립을 해보지 못해 원룸텔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주거 종류를 알아보고 새로운 동네에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고, 어디에서도 혼자 지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립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도전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저에게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저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도전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코디네이터 참여 소감

01. 김혜빈_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54
02. 양규원_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57
03. 김나리_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60
04. 서연정_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62
05. 이시아_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65
06. 전규민_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68
07. 신성철_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71
08. 이근호_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74

#01

3년간의 개인예산제 참여 기록

김혜빈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단계부터 1차 시범사업,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는 2차 시범사업까지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며 보람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어렵고 난감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실무자인 제가 참여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선택을 어떻게 더 넓혀 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배워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 TFT 회의

지원 코디네이터와 기관은 단순한 행정적 안내를 넘어 참여자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충분히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개인예산제에서 자기주도계획서 작성은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이전에 참여자의 삶의 맥락과 경험을 함께 이해하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반복적인 상담과 대화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욕구를 발견하고,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인식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선택을 지지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정형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딩 교육이나 바리스타 교육과 같이 참여자의 관심과 목표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수업을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참여하신 한 참여자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목표로 교육에 참여하였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변화를 스스로 이야기하며 점차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제안을 기획하고 웹페이지를 구축해 가는 과정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해



코디네이터 워크숍

가는 경험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개인예산제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의 삶에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서비스임에도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험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참여자가 자신의 필요를 직접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더욱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며 개인예산제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었다고 느낀 가장 큰 지점은 참여자의 자기결정과 동기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원 금액, 이용 서비스, 기관 선택까지 모두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정해진 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깊이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강사나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찾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인예산제가 참여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02

삶을 잇는 동행, 개인예산제에서 배운 성장 이야기

양규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과정에서 느낀 지원코디네이터, 지원기관의 역할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당사자의 삶의 한 부분을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걸었다 생각합니다. 참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계획하고 같이 걸어가는 지원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개인예산제 참여 과정에서 느낀 변화(실무자 관점)

참여자의 삶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상하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며, 진정한 사람 중심의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복지관 TF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스터디와 노원구 지역 개인예산제 지원기관이 함께한 연합 워크숍은 지원기관 실무자들과 함께한 학습 공동체의 장이었고, 그 안에서 동반 성장을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었던 경험 또는 인상 깊은 사례

제가 지원했던 참여자 중 한 분은 발달장애가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만남 초기, 정작 당사자의 욕구보다는 오랜 시간 아버지 돌봄에 지친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인예산제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또한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경청하고자 하니 원하는 삶의 방향을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카페 음료를 배우는 과정을 마친 당사자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그토록 딸이 원하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실천이 이렇게나 큰 힘을 갖는구나 하는 배움이 있었던 사례였고, “맛있고 깨끗한 커피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장위동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당사자의 꿈은 이제 일상에 가까워졌습니다.



■ 실무자 학습회의

종합 소감

사업 참여 전 저는 ‘그렇게 짜여진 계획과 서비스가 과연 당사자의 일상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한 조각씩 맞춰가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예산제 코디네이터를 맡길 잘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저 자신도 업무 태도와 의견 수렴 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연합 워크숍

#03

결과보다 과정에서 발견한 개인예산제의 의미

김나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2년째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코디네이터와 지원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참여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선택을 함께 정리하고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참여자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분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스스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로서는 선택의 경험이 쌓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었고, 실무자에게는 지원의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참여자의 의지와 참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율이 쉽지 않았으며 때로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선택을 이어갈 때, 지원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이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삶을 스스로 계획해 보는 경험이 되었고, 실무자에게는 지원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이 지속해서 공유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에서도 TF를 통해 공통된 관점을 맞추고 실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가 더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04

개인예산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자산 기반 지원체계 마련

서연정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인예산제 이해 증진과 지역자산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개인예산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업 취지와 지원 범위에 대한 이해 차이를 조율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넘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산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적극적인 중개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탐색하고, 기관과의 소통을 중재하며, 필요 시 이해를 돕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으로,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일반복지수단 활용을 통한 당사자 주도성 및 사회참여 확대

당사자들은 개인예산제 참여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용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일반복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경험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했으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당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가족이나 지원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인예산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을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을 넘어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 개인예산제 TFT회의

맞춤형 지원 실현과 지역사회 기반 확장의 가능성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이 강점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장애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당사자의 실제 욕구에 보다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정 가운데, 발달장애당사자를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인예산제 참여를 계기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고, 이후 다른 발달장애당사자의 참여에 대해서도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역사회 자산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꾸준히 데이터화하고 공유한다면, 더 많은 당사자가 지역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캐나다 Here&Now 이보상 총장

#05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참여 소감

이시아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 과정에서 느낀 지원코디네이터, 지원기관의 역할

개인예산제는 참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물리적·제도적 한계로 보장받기 어려웠던 선택권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향유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이용은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포착하고 본인의 소중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예산제 참여 과정에서 느낀 변화(참여자 관점, 실무자 관점)

[참여자 관점: 상상에서 실제로, 창작이 준 일상의 활력]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캐릭터와 이미지들이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정교하고 섬세하게 구현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창작 활동에 대한 몰입도와 흥미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기술적 향상 의지는 단순히 그림 실력에 그치지 않고 일상 전반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생활의 활력과 더불어 이전보다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자 관점: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삶의 전방위적 변화]

실무자의 시선에서 지켜본 참여자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 습득 그 이상이었습니다. 창작을 통해 회복된 자신감은 타인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화목한 가족 관계로 이어졌으며, 이는 개인예산제가 한 개인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긍정하게 만드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었던 경험 또는 인상 깊은 사례]

● 가시적인 성장을 통해 체감한 정책의 효과성

개인예산제의 효과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참여자의 교육 전후 그리기 기술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을 때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이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참여자 스스로가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개인예산제가 참여자의 자아실현에 얼마나 깊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렬하게 체감 할 수 있었습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이 만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기존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사업과 달리, 개인예산제는 참여자의 고유한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참여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과 도구가 뒷받침되자, 서비스의 목표 달성률은 물론 기대했던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필요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종합 소감

사업 초기, 개인예산제 선정을 위해 참여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처를 발굴하여 매칭하는 과정은 담당자로서 상당한 긴장감과 현실적인 고충이 따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참여자가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는 초기 단계의 고충을 모두 상쇄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참여자의 성과 변화도를 점검하며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참여자가 서비스에 깊이 몰입하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현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강사님과 참여자 사이에 흐르는 유기적인 피드백과 소통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정서적 교감이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장에서 발휘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변화를 지켜보며, 담당자로서 사업 운영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한 개인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06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개인예산제로 시작하는 자립

전규민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코디네이터로서 처음 마주한 고민

코디네이터로서 처음 마주한 C의 사례는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C는 학업과 대외활동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지만, 편의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인적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C는 어린 시절부터 큰 체격이라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활동지원사 매칭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어렵게 매칭이 되더라도 활동지원 과정의 신체적 부담을 C의 탓으로 돌리는 언행을 겪으며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결국 C는 독립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일상생활, 학교생활, 취미생활 대부분을 어머니와 함께해 오고 있었다.

C의 일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현재의 제도는 당사자가 활동지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활동지원사가 당사자를 선택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C와 같은 일부의 당사자들은 자립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자립 지원을 고민할 때 ‘누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인력 매칭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립 지원에서 ‘사람을 붙여주는 일’에만 집중했던 나의 협소한 관점이, 어쩌면 C와 같은 당사자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한 것은 아닐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타인의 손길보다 단단한, 스스로라는 이름의 손잡이

C와 상담을 거듭하며 진정한 자립은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개인예산제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된다. 당사자는 개인마다 다른 특수한 욕구에 맞는 지원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C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가장 시급한 고민은 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을 타인의 손길 없이 스스로 해내는 것이었다. C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상의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는 C가 욕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비데를 비롯한 전반적인 편의시설을 보강해 C가 스스로 일상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타인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던 수동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익숙한 집 안 환경을 C의 신체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C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집 내부를 개선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도 신체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욕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해낸 경험은 C에게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코디네이터로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노원구 지원기관 연합 성과공유회

전달자에서 자립의 지원자로 다시 서다

C는 이제 더 구체적인 꿈을 꾸다. ‘혼자 살게 되면 큰 침대랑 TV를 두고, 하루 종일 야구만 보면서 살 거예요’라는 C의 꿈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하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소소하고 위대한 꿈이 나오기까지 C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들을 타인에게 사과해야 했던 불편한 시간들을 견뎌 왔다. 그러나 개인예산제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성취해 내겠다는 주체적인 의지를 갖게 되었다. 나는 C와의 동행을 통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제도의 틀 안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채워주는 전달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당사자의 잠재력을 막는 환경적 장벽을 함께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조력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장애를 환경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당사자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적인 삶을 꿈꿀 수 있다. 앞으로도 나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선택이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해 나가는 동행자가 되고자 한다.

#07

소통과 성장의 기록

신성철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업 수행 및 지원 내용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인이 단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단순히 공문 발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욕구 기반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관내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25개 지회와 수어통역센터를 두루 방문하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가치를 수어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만으로는 제도 이해가 어려운 농인 당사자들을 위해 영상전화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 주말에도 발생하는 질의에도 꾸준히 응대하여 당사자들이 ‘나도 신청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참여자 소통 및 서비스 지원

독학으로 뜨개질을 익힌 농인 참여자 윤현주 님은 학습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뜨개질에 대한 제 지식이 부족해 상담에 한계를

느꼈으나, 관련 공부를 병행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의 잠재된 꿈이었던 ‘전시회 개최’와 ‘전문 작가로의 도약’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농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자-강사-코디네이터 간 카카오톡 기반 소통을 통해 시야를 확보한 1:1형 자리 배치, 시각 자료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와의 소통 원활 여부, 교육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교육 진도, 예산 집행, 작품 제작 현황, 전시회 준비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소통 체계는 예산 집행 관리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환경적 보안을 병행한 밀착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및 변화

개인예산제를 통해 참여자와 강사가 협의하여 기획한 교육과정, 작품 제작, 전시회 준비 등의 과업이 차례로 완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자가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자립과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오는 2026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전시회를 준비하며 사회 활동에 자신감을 되찾은 윤현주님의 모습은 실무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준비 중



당사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준비했던 작품들이 보다 내실 있게 완성되지 못한 점과 유튜브 교육 영상 업로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도전의 과정 자체가 주도적인 선택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개인예산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언 및 소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홍보 자료를 통해 형성된 기대치에 비해 실제 예산 신청 및 집행 단계에서의 제약이 많았다는 현장의 피드백입니다. 향후에는 당사자들이 사업 취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재고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민 당사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경제적 문턱에 가로막혔던 꿈들이 공공의 지원과 세심한 환경 조성을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은, 본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확신합니다.



#08

개인예산제,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작!

이근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발달장애인을 품다

1차 시범사업 진행 후, 2차 시범사업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며, 서울형 개인예산제가 본격적으로 모든 장애유형을 아우르는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개인예산제가 홍보되면서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졌고,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복지관도 개인예산제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시작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장애당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하면서 당사자와 보호자 중 누가 원하는 삶을 지원하는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고, 의사표현이 잘 되는 경우에는 만날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이 바뀌어 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만남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사람중심실천(PCP)이 이론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이는 코디네이터로서 새로운 경험과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회변화의 시작

예산사용처를 탐색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업체도 있었으나, 함께 업체를 방문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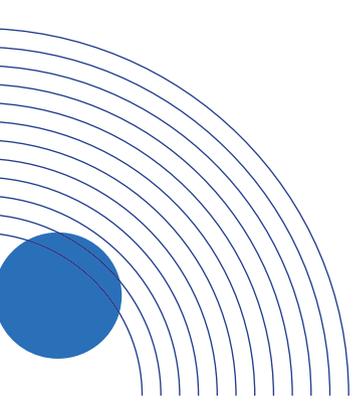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지도를 하는 강사, 그룹에서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수강생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개인예산제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이 개인 또는 그룹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사회참여의 경험은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민의 시작

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예산을 승인받아 사용해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생활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의 여가활동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공간 임대료 지원도 조건부 승인이 되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에게 개인예산제는 그들이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동안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던 나의 이야기가 현실화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또 다른 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